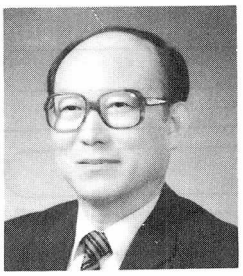
卷頭言



自然에의 順應을 基調로

李 賢 宰
〔國立公園協會 會長〕

지금 우리人類는 有史以來 전혀 경험해 보지못한 環境의 危機에 直面하고 있다.

그런 渦中에 生態學에 대한 關心과 硏究가 高潮되고, 無分別한 開發이 가져온 自然시스템의 破壞와 資源의 枯渴, 各種公害 등에 관한 뼈저린 反省이 싹트게 된 것이다.

近者에 새로이 脚光을 받기 시작한 리유스(再活用) 리사이클(再循環)의 문제만해도 資源의 節約이라는 側面보다는 環境汚染을 줄이는데 寄與한다는 側面에 무게가 더해진다.

그러나 이와같은 省察의 所産이란 것이 機械시스템으로 自然시스템을 代替 또는 補完할 수 있다는 式의 이른바 産業 이콜로지(ecolgy)的 發想에 연유한다면 그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하기야 地球上에 모습을 드러낸 生物中에서 人類만큼 繁榮한 例를 찾을 수 없다. 文明과 文化를 쌓아올린 德分인 것이다.

그렇지만 人間스스로 만들어낸 機械文明이 人間만이 享有하는 精神과의 調和를 維持하지 못하고 마침내 滿身瘡痍가 된 環境속에 肉體조차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된 것이다.

아득한 옛날 地上을 支配했던 恐龍은 自然시스템의 급격한 變化에 적응하지 못하여 滅亡했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人類의 進步를 지탱해온 文明이란 것이 도리어 人類의 보금자리인 自然을 破綻으로 이끌고 自己自身도 自滅의 길을 걷는다면 이 얼마나 可恐할 일인가.

생각컨대, 東西洋이 人間을 萬物의 靈長으로 自處하는 점에서는 꼭같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西洋의 그것은 自然을 征服하고 支配하는 것이 마치 神에게서 받은 人間의 特權인양 여기며 人間의 優越性과 潛在力을 無限大하다고 믿는 思想에 뿌리하고 있지만, 東洋의 그것은 自然에 대한 畏敬이 宗敎的 次元에까지 이르러 사람의 죽엄도 "돌아갔다"로 表現하는 우리말에서 엿볼 수 있듯이 人間을 自然의 一部로 여기면서 어디까지나 不完全한 存在로 믿는 思想에 뿌리하고 있는데에 그 差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世界最高峰 에베레스트 征服! 有人宇宙船 달 征服! 云云으로 象徵되는 西洋人들의 氣勢등등한 自然觀이 이제 限界에 다다랐다는 것을 어느누구도 否認할 수 없는 것이 오늘의 地球村이다.

그러기에 汎人類的 콘센서스의 바탕위에 自然의 하모니에 順應함으로써 自然의 生態系로 하여금 그 秩序와 리듬을 되찾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人類의 當面한 至上課題가 아닐 수 없다.

技術의 革新 開發을 뉘라서 拒否하랴. 다만 그것이 自然의 시스템과 밸런스를 破壞하거나 人間으로 하여금 公害에 멍들게 하는 따위의 産業技術로서는 새 技術로 評價받을 수가 없다는 것뿐이다.

이제부터의 모든 生産技術은 自然에의 順應을 基調로 한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오직 하나뿐인 地球를 살릴 수 있고 오늘에 삶을 누리는 우리뿐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子子孫孫의 生存權을 永遠히 確保할 수 있기 때문이다.